

4. 독일 비판전기(pre-critical period)의 합리론

- 4.1. Baruch Spinoza (1632-1677)의 심적 결정론
- -생애:
 - 암스텔담 출생 -스페인; 생계를 위해 렌즈 닦기공 직업
- 학교, 교회기관 등에서의 거액의 장학금,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의 교수직 제공을 거절하고
- 종교적 권위와 독립하여 자신의 학문적 이론 정진함 .
- 유대교에서 파문당함
-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히브리어, 희랍어, 라틴어 유창, (모국어 홀랜드어 곤란)
- 철학자, 수학자 -책: 윤리학
- 방법론: 기하학 방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지식 도달가능
- <= 경험적, 귀납적 방법보다는, 이성적 방법, 연역법에 의존

3-2강 file no.38

다음에는 나라를 달리하여 독일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판전기(pre-critical)¹⁾ 합리론과 그를 대표하는 학자들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피노자의 입장의 전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피노자]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에 의하면 중세에는 인간 삶의 사건에 신이 개입하기 때문에 마음을 결정론적으로, 기계론적으로 생각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뉴턴은 신이 개입할 수는 있지만 마음은 본질적으로 기계론적으로 결정된다 라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갈릴레오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음도 기계론적으로 작동하고 결정된다 라는 것이, 즉 , 마음에 기계론적인, 법칙적인 그런 학문적인 탐구가 적용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스피노자였습니다.

스피노자는((Baruch Spinoza; 1632 - 1677;
http://en.wikipedia.org/wiki/Baruch_Spinoza)

홀랜드 출신의 유대인으로 유럽 대륙 합리론 전통의 철학자요 수학자였습니다. 그는 학교, 교회기관 등에서의 거액의 장학금의 제공이나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의 교수직 제공을 거절하고 생계를 위해 렌즈 연마공 직업을 택하여 종교적 권위와 독립하여 자신의 학문적 이론을 정진하였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굉장히 어릴

1) 칸트가 합리론과 경험론을 통합하는 책 '순수이성 비판' 책을 쓰기 이전 시기

때부터 상당히 깊은 물음을 갖고 탐구해가며 성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범신론 :
 - Deus sive Natura (God or Nature)
- 현대적 유대철학자
 - 윤리론
 - 우주의 모든 것이 결정론적
 - 자유의지는 원인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착각
- 자연의 통일성
- -심리적 결정론 psychic determinism:
 - 행동은 심적 원인에 의해 일어난다.
 - <http://www.selfknowledge.com/115au.htm>

3-2-39

3-2강 file no.39

스피노자는 [신=자연]에 가까운 범신론을 전개하였고,²⁾ 신의 개입 의지 대신에 자유의지를 거론하는 것은 원인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착각 때문이며, 우주의 모든 것이 결정론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우주와 자연과 인간의 마음이 기계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이뤄지고 작동되는 것이니까 마음을 포함해서 자연에 통일성이 있다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의 생각은 일종의 심적결정론(psychic determinism)적 생각이었습니다. 이는 후대의 프로이트적 심리역동 생각과 맥을 같이 합니다.³⁾

합리론적 전통의 학자라고 불릴 수 있는 그였지만 그는 Descartes의 상호작용

2) 스피노자의 범신론은 유물론, 무신론, 유신론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는 [모든 존재의 통일성, 세상사의 규칙성, 영혼과 자연의 동일성]의 생각을 그의 범신론("God or Nature" (Deus sive Natura))에서 전개하였는데, 그의 범신론에서는 자연이 신의 피조물인 수동적 실체가 아니라, 활동하는 신의 개념으로 제시되었기에 그의 범신론은 무신론이라기보다는 유신론에 더 가까운 개념이었습니다. 신(=자연)은 많은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의 둘이 '사고'와 '(공간에의) 연장됨(전충)'이었고, 이 틀에서는 물리적 세상과 심리적 세상이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었고 몸과 마음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스피노자의 범신론 관점은 일종의 '증립적 일원론'에 가까운 개념이었습니다.

3) Benedict de Spinoza Books Online: <http://www.selfknowledge.com/115au.htm>

적 심신이원론을 수정하여 몸과 마음이 실체의 양면이라는 심신이면성(二面性, double aspects) 또는 심신병행적 일원론(monistic parallelism)을 제시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듯 별개로 분리될 수 있는 두 개의 실체가 아니라, 몸과 마음은 [자연=신]의 두 속성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모든 신체적 사건은 심리적 사건과 공존하는 것이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인과(cause) 시키거나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데카르트 식으로 마음과 몸이 상호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외견상 그렇게 우리가 보고 또 생각할 뿐이지 참실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몸이 마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거나, 마음이 신체적 움직임을 결정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데카르트가 영향을 받았던 기독교 전통은 영혼과 신체를 대립적으로 보는 관점인데 반하여 스피노자가 영향을 받았던 유대교 전통에서는 그런 대립적 관점보다는 마음-몸의 통합적 관점이 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신(=자연)은 ‘공간적으로 연장됨’(extension) ‘생각’(thought)의 두 속성을 지니고 있는 데, 인간의 마음은 신(=자연)의 마음의 한 속성(mode 또는 attribute)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몸과 마음이 한 실체의 양면이기에, 인간 신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도 동일한 자연법칙에 의존하고, 마음도 물질과 마찬가지로 결정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정신과 신체는 동일한 것의 양면 속성이므로 우리의 정신적 활동도 신체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결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선택 행위는 자유로운 것이라고 믿도록 생각한다면, 이는 단지 우리가 그것의 참 원인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며, 즉 그것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쉬어가는
학습

- -심적 결정론: 마음 -> 행동의 원인, 기계적 결정, 자유의지의 배제
- “정신과 신체는 단지 서로 다른 속성 하에서 생각된 동일한 것이므로 우리의 정신적 활동도 신체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결정되어 있다.
- 만일 우리가 자신의 신중한 선택 행위는 자유로운 것이라고 믿도록 자발적으로 이끌린다면, 이는 단지 우리가 그것의 원인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즉 그것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 - 감정과 행위에 대한 자연주의적 설명: 결정론

3-2-42

따라서 그는 인간의 신체에만 기계적 결정론을 적용하려 했던 데카르트의 생각을 넘어서서, 인간의 마음에까지 기계론을 적용한 최초의 철학자였으며 영국 과학자 뉴턴이 제기한 바 있는 ‘심리적 사건도 결정론적 법칙에 따를 것이다’는 생각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물론 뉴턴이나 스피노자 모두, 기계적 결정론을 지지하면서도 신의 섭리에 의한 결정 원인을 인정하기는 하였고 두 사람의 ‘신’ 개념이 서로 달랐지만).⁴⁾ 이러한 기계론은 경험론적 기초를 깔고 있었기에 스피노자는 합리론자이면서도 경험론적 입장을 지닌 학자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칸트가 후에 합리론과 경험론을 통합하는 지적 배경이 이미 스피노자에게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 하여, 그의 심신 이론인 심신병행론 또는 심신일원론에서는 마음과 몸이 한 현실의 양면이며,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보는데, 이는 생리적 바탕과 심리적 가정을 융합하여 생각하는 가장 현대적인 개념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행동은 자유의지를 배제하고 기계적 결정론에 입각하여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그의 심적 결정론은 감정과 행위에 대한 자연주의적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신병행론은 한동안은 19세기 정신(심리)물리학의 주창자 G. Fechner에게 영향을 준 바 이외에는 심리학에 별로 직접적으로 큰 영향 주지 못하였었습니다. 21세기 들어서야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틀이 학계에 떠오르면서 비로소 스피노자가 재조명되고 있을 뿐입니다.

쉬어가는
학습

- -지식의 3수준 (윤리론 책):
- 1. 첫 번째 종류의 지식:
 - cognitio primi generis, 의견, 표상 지(Imaginatio)
 - 혼동된 지식; 감각경험에서 음, 참이 아닐 수 있음; 연상법칙
- 2. 과학적 지식:
 - cognitio secundi generis : - 이성 수준의 지식:
 - 감각 경험의 특징에가 아닌 보편에 대한 추상화; 연역적 과정 개입
- 3. 직관적 지식 (scientia intuitiva):
 - 2의 결과로 생김;
 - 자연의 본질 및 그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에 대한 직관
 - 상상에서 직관 수준으로 가야 행복 도달;

3-2-40

3-2장 file no.40

4) "Spinoza was perhaps the first modern thinker to view the world, including man, from a strictly deterministic standpoint." (R. I. Watson (1978), p. 167).

그의 중요한 저서로는 그의 사후에 출간된, [윤리학](Ethica)⁵⁾이 있으며, 그는 기하학 방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지식에 도달 가능하다고 믿고, 경험적, 귀납적 방법보다는, 이성적 방법, 연역법에 의존하려 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책, [윤리학]에서 지식의 3수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였습니다.

1. 첫 번째 종류의 일반적 지식(cognitio promi generis), 의견, 표상 지(imaginatio)
 - 혼동된 지식; 감각경험에서 옴. 참이 아닐 수 있음; 연합법칙에 의하여 연결됨
2. 과학적 지식(cognitio secundi generis) : - 이성 수준의 지식:
 - 감각 경험의 특정 예가 아닌 보편에 대한 추상화; 연역적 과정이 개입됨
3. 직관적 지식(scientia intuitiva): 2의 결과로 생김;
 - 자연의 본질 및 그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에 대한 직관적 지식임
 - 상상에서 직관 수준으로 가야 인간은 행복에 도달 가능함

인간은 지식에 의해서만 감정(정념, passions)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참 이해에 바탕을 둔 지식은 우리를 정념으로부터 해방시키며, 이는 신(=자연)에 대한 사랑으로 가게 하는데, 그러나 이는 초월적 신적, 인격적 존재로서의 신에 대한 사랑으로가 아니고 수학기공식의 이해 등에서 오는 즐거움과 같은 신에 대한 사랑이며 여기에서 도덕이나 윤리의 바탕이 생긴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인지적 과정 중심으로 한 그의 기계론적 분석보다는 심리적 역동 과정에 대한 그의 생각이 후대 심리학에 더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이유의 하나는 스피노자는 데카르트 식의 인지(cogito)보다는 삶의 역동(conatus)이나 감정(affective)적 측면을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대의 다른 합리론 철학자들과는 달리 인간 정서(감정)의 유형 및 역동 등을 분석하는 학문적 작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 이유는 그의 저서, '윤리학'에서 드러나듯이 그의 학문적 탐구의 궁극적 목표는 마음의 지적 구조를 분석하기보다는 한 개인이 어떻게 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함(excellence)에, 그리고 삶에서 자아충만성에 도달하느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삶의 역동에 관하여, 모든 개체는 그 존재를 존속시키려는 추동(strives)을 지닌다고 보았고, 다른 합리론자들과는 달리 정서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감정을 수동적 감정(외부적 원인에 의한, 예; 증오심)과 능동적 감정(수동적 감정의 원인에 대한 명석한 관념을 형성한 감정)으로 구분하였고, 정서의 세 기본유형을 기쁨(joy), 슬픔(sorrow), 욕망(desire)으로 생각하였고, 40여개에 이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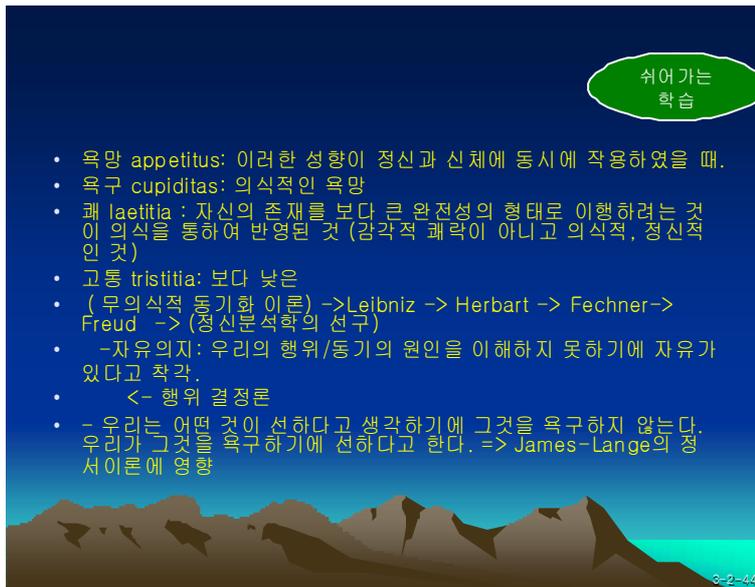
5) Ethica에 대하여는 아래 웹 사이트 소개 자료를 참고하세요.

는 다른 정서들은 이들의 연합, 또는 이에 인지적 과정이 추가되어서 파생된다고 보았으며, 동물에도 감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삶의 역동과 정서를 기술하고 분류하는 체계적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의 역동, 동기화의 강조는 후대의 심리학적 이론들에서 Leibniz, Herbart, Fechner로 이어지는 무의식적 마음의 역동 개념으로 나타났고 결국은 프로이트와 Adler의 심적동기화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하기에 스피노자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개념의 선구자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 자신은 스피노자의 이론을 공부하여 이론을 만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PPT 슬라이드(#44)에서 정서에 대한 스피노자의 생각의 상세한 내용이 제시되는데 이는 설명 없이 건너뛰기로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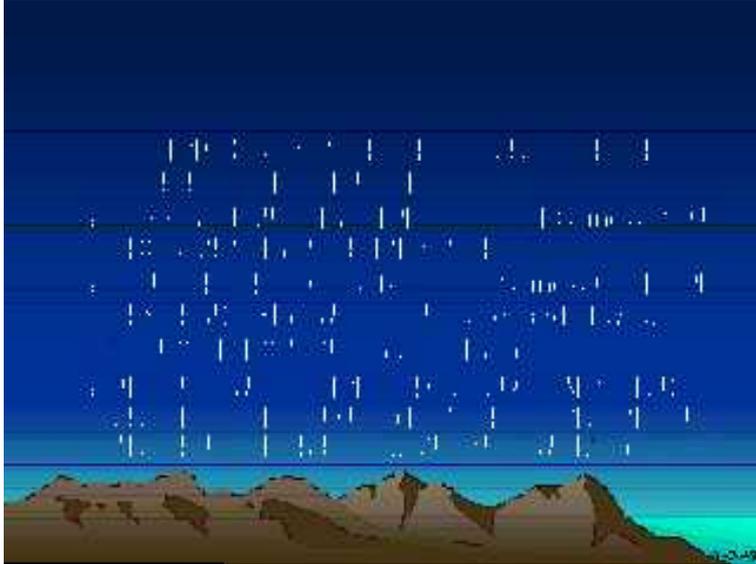
3-2장 file no.44

단지 그의 정서 관련 논의가 19세기 말의 심리학의 James-Lange의 정서이론의 선구였다는 측면만 언급하고 넘어가지요. (James-Lange 정서이론은, 쉽게 이야기 해서 꿈이 무서워서 달아난다고 하기보다는 달아나는 행동을 하니까 공포 감정이 생긴다는 식으로 신체적 생리 피드백의 해석에 의해 감정이 생긴다는 것인데,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langpair=en%7Cko&u=http://www.psychwiki.com/wiki/James-Lange_Theory_of_Emotion)

종합하여 본다면, 스피노자는 인간의 신체에만 기계적 결정론을 적용하려 했던 데카르트의 생각을 넘어서서 인간의 마음의 작용 과정에까지 기계론을 적용하게 하고, 마음의 역동적, 정(情)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몸-마음의 본질적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하여 데카르트의 편협한 심신이원론과 인지 중심의 논의를 넘어서 이후의 심리학이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융통적 관점을 전개하고 마음의 역동에 대한 심리학적 탐구가 가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체화된 인지' 접근 틀과 관련하여 심리학에서의 스피노자의 중요성이 재평가되고 있고, Bernard(1972)에 의하면 현대심리학은 데카르트보다도 스피노자에게 더 큰 역사적 빛을 지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심리적 과정에 대한 기계적 결정론적인 접근의 부각 이외에는 스피노자의 영향을 직접 받았다는 이론이 20세기 심리학에 적은 것 같습니다.



3-2강 file no.45

스피노자 관련 웹 자료 사이트 일부를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키피디아 자료 : http://en.wikipedia.org/wiki/Baruch_Spinoza

스탠포드대 철학백과사전 자료 : <http://plato.stanford.edu/entries/spinoza/>

인터넷백과사전 사료 : <http://www.iep.utm.edu/s/spinoza.htm>

책 [Ethica] (영문), <http://www.earlymoderntexts.com/sp.html>

책 [에티카] (한글번역) : 1. 서광사 :

- http://www.bookoa.com/module/book/book_view.asp?book_no=8795502

- 2. 책세상문고:

http://books.google.co.kr/books/about/%EC%97%90%ED%8B%B0%EC%B9%B4_%EC%B1%85%EC%84%B8%EC%83%81%EB%AC%B8%EA%B3%A0%E1%86%9E%EA%B3%A0%EC%A0%84%EC%9D%98.html?id=k9FbMgAACAAJ&redir_esc=y

The Philosophy of Benedictus de Spinoza ;

<http://users.telenet.be/rwmeijer/spinoza/>

The Works of Spinoza / - Topic Index (1);

<http://home.earthlink.net/~tneff/index3.htm>

- his book, [Ethica], in Latin;

<http://users.telenet.be/rwmeijer/spinoza/works.htm?lang=E>

The Philosophy of Benedictus de Spinoza study site (in English)

- <http://home.earthlink.net/~tneff/index.html>

Ethics: Demonstrated in Geometric Order AND DIVIDED INTO FIVE PARTS,

- (in English) / - Contents / I. Of God. / II. Of the Nature and Origin of the Mind. / III. Of the Origin and Nature of the Affects. / IV. Of Human Bondage, or the Power of the Affects. / V. Of the Power of the Intellect, or of Human Freedom. /:

<http://frank.mtsu.edu/~rbombard/RB/Spinoza/ethica-front.html>

Spinoza's Classification & Definition of Emotion/ - (in English) :

<http://home.earthlink.net/~tneff/index3.htm>

On the Improvement of the Understanding / - Benedict de Spinoza

- Table of Contents: / P01(1). Of the ordinary objects of men's desires./ P12(6). Of the true and final good. / P16b(7). Certain rules of life. / P18b(12). Of the four modes of perception. / P25(22). Of the best mode of perception. / P32(32). Of the instruments of the intellect, or true ideas. / P43(38). Answers to objections. / P50(43). First part of method. Distinction of true ideas from fictitious ideas. / P66(54). And from false ideas. / P69(55). Reality of truth. / P77(61). Of doubt. / P81(62). Of memory and forgetfulness. / P88(66). Mental hindrances from words and confusion of ready imagination with understanding. / P91(68). Second part of method. Its object, the acquisition of clear and distinct ideas. / P92(69). Its means, good definitions. Conditions of definitions. / P99(81). An order which enables us to avoid useless labour. / P106(86). How to define the understanding. :

<http://home.earthlink.net/~tneff/index3.htm>

다음에는 독일의 합리론자로서 심리학이 독일을 중심으로 하나의 학문으로 떠오르는 데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던 라이프니츠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Leibni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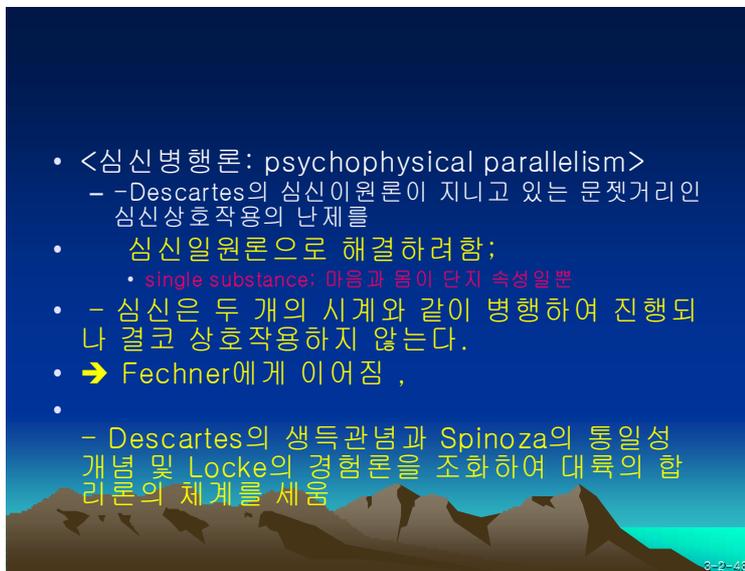


- 4.2. Gottfried Wilhem von Leibniz (1646-1717)
- 단자론과 심신병행론
- <생애>:
 - 8세에 라틴어, 12세에 히랍어, 15세에 Leipzig 대학 입학, 20세에 6개월 만에 법학박사학위, 대학이 20세인 그에게 교수자리 제공하였으나 거절하고, 궁정 법률자문가로 일하면서 학문; 각종 종교학의 통합, 법체계의 정리, 철학, 수학, 과학 공부.
 - 27세에 수리계산기계를 영국왕립학회(RS)에 제시하여, 최초의 외국인 멤버로 추대됨.
 - 28세에 미적분학 체계 발견. 오늘날 그의 체계가 사용됨
 - 수학, 광학, 역학, 통계학, 논리학, 확률이론, 역사학, 철학, 법학, 정치학
 - 그의 철학 이론이 18세기 합리론의 기초가 됨
 - 베를린 과학학회 창립 -> Prussian 과학원

3-2강 file no.47

[라이프니츠]

독일의 합리론 철학자 라이프니츠는(Gottfried Wilhelm Leibniz: 1646-1717; http://en.wikipedia.org/wiki/Gottfried_Wilhelm_Leibniz; <http://plato.stanford.edu/entries/leibniz/>) 15세에 대학에 입학하고 20세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8세에 미적분학 체계를 세우는 등의 그의 생애를 보면 데카르트나 스피노자처럼 천재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3-2강 file no.48

라이프니츠는 심신병행론을 제시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심신이원론에서 마음과 신체가 별개의 독립적인 실체이다 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면, 그 둘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에 대하여 데카르트는 그 상호작용의 장소가 뇌의 송과선이라는 (오늘날의 신경과학 지식에 의하면 이것도 틀린 이야기이지요) 점 이외에는 데카르트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라이프니츠는 심신병행론을 제시해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별개의 독립된 실체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심신 일원론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두 개의 시계가 똑같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으나 결코 상호작용하지 않는 그런 것처럼 몸과 마음은 같은 실체의 두개의 다른 면으로, 병렬적으로, 병행적으로, 또 상호작용하지 않으면서, 진행된다 라는 생각을 그는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후에 19세기의 G. Fechner의 정신(심리)물리학이론 바탕에 이어지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데카르트의 생득관념과 스피노자의 통일성 개념 및 로크의 경험론을 조화하여 대륙의 합리론의 체계를 세웠고, 그의 철학 이론이 18세기 합리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귀납법을 기본 방법으로 상용하되,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공격하며 스피노자의 전체 개념을 발전시켜 단자론(單子論, (monadology)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플라톤이 제시한 불가분의 영적 본질이라든가 조화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모든 사물의 핵심이 되는 불가분의 통일된 유일의 단순한 실체이며 부분이란 것이 전혀 없는 참된 통일체이며 활동 그 자체인 단자(單子, monad)의 속성으로서 개념화하였습니다. 즉 라이프니츠의 기본개념은 다음 슬라이드(#49)에 표로 나오는 단자라는 개념입니다. 물질이건 마음이건 모든 것의 기본단위가 단자(monad)라는 굉장히 작은 단위로서 이것 자체가 힘과 에너지와 불변성을 갖고 있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쉬어가는
학습

원자 atom	단자 mona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 주장자: Democritus • 의미: • 공간에 연장된 물질 • 생명이 없는 물질분자 • 변화, 소멸가능, 상호의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ibniz • 단위 • 공간을 점유하지 않은, 비연장(진공)적 힘과 에너지 • 살아있고, 활동적임, 지각 능력 있음 • 정도의 수준 차이가 있음 • 불변, 창조-파괴 불가, 상호 독립적

3-2강 file no.49

그에 의하면, [단자의 내적인 활동과 질(質)이 지각인데, 지각은 완전히 조화된 지각의 상태를 향하여 끊임 없이 활동하는 경향성(appetitions)에 의하여 활동적 통일체로 형성됩니다. 혼돈되고 무의식적인 소(小)지각(petites perception)에서 -> 외적인 대상을 내적으로 표상한 상태인 일반 지각을 거쳐, -> 완벽하고 명확한 의식의 상태인 통각(統覺, apperception)으로 변화되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쉬어 가는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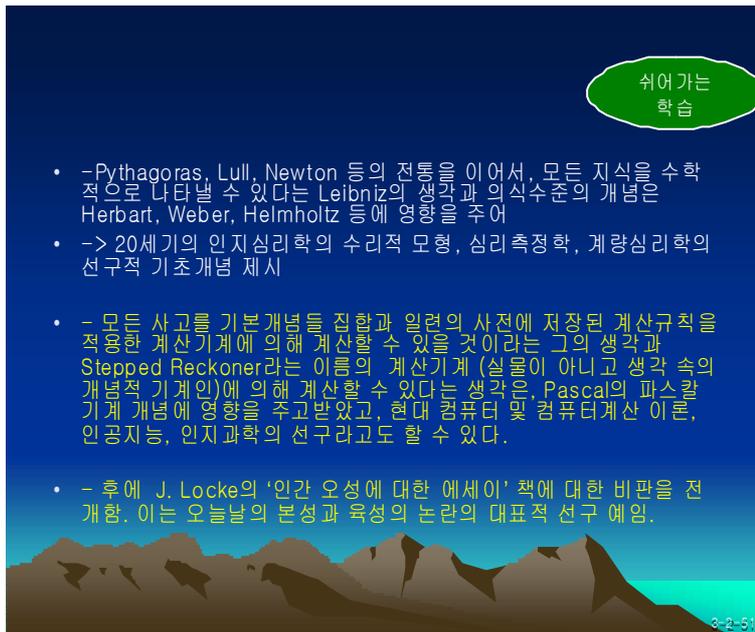
- <의식의 수준>: monad의 내적인 활동과 質이 지각인 데, 지각은 완전히 조화된 지각의 상태를 향하여 끊임 없이 활동하는 경향성인 appetitions 에 의하여 활동적 통일체로 형성된다.
- 혼돈되고 무의식적인 소지각(petites perception)에서
- > 외적인 대상을 내적으로 표상한 상태인 일반 지각을 거쳐,
- > 완벽하고 명확한 의식의 상태인 통각統覺 (apperception)으로 변화
- 질적으로 다른 세 과정을 거치는 이러한 지각은 단순한 경험에 의해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기계론적으로 환원될 수 없고, '지각과 지각에 의존하는 것을 기계적 원리로 설명할 수 없다'(1898)고 하여 反요소주의를 제기하고 전체주의를 지지

3-2-50

3-2장 file no.50

그는 의식의 수준에 대해서, 혼돈되고 무의식적인 소지각에서 -> 외적인 대상을 내적으로 표상한 상태인 일반지각을 거쳐 -> 완벽하고 명확한 의식의 상태인 통각으로 넘어가는 의식의 3단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질적으로 서로 다른 이 세 과정을 거치는 지각은 경험론자들의 주장처럼 단순한 감각 경험에 의해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기계론적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는 '지각과 지각에 의존하는 것을 기계적 원리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여 反요소주의를 제기하고 전체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을 전개하였습니다.

회랍시대부터 Pythagoras, Lull, Newton 등의 전통을 이어서, 그는 모든 지식을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생각을 전개하였는데 그러한 생각과, 그의 의식수준 개념은 후대의 Herbart, Weber, Helmholtz 등에 영향을 주어 정신(심리)물리학을 출발시키고, 20세기의 인지심리학의 수리적 모형, 심리측정학, 계량심리학의 선구적 기초개념이 되었습니다.



3-2장 file no.51

또한 모든 사고를 기본개념들 집합과 일련의 사전에 저장된 계산규칙을 적용한 계산기계에 의해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생각과 ‘Stepped Reckoner’라는 이름의 계산기계 (실물이 아니고 생각 속의 개념적 기계인)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같은 시대의 파스칼의 파스칼기계 개념에 영향을 주고 받았고, 현대 컴퓨터 및 컴퓨터계산 이론, 인공지능, 인지과학의 선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후에 존로크의 ‘인간 오성에 대한 에세이’ 책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오늘날의 심리학과 인지과학에서의 본성과 육성에 대한 논란의 대표적 선구 예이기도 합니다.

감각 경험이 인지에 선행한다는 경험주의에 반대하여 인지가 본유적이고 선형적이라는 그의 주장(Brett, 1912)과, 존 로크의 백지장(tabula rasa) 또는 ‘빈 서판’이란 것은 일종의 허구라고 한 그의 주장과(Robinson, 1976), 통일적 실체의 단자 개념의 제시와, 통일체란 어떤 것이든 그 자체의 완전한 자발성을 통해 일어난다는 개념 등은 경험론자인 로크의 마음의 원자적 이론에 대응되는 전체적(holistic) 관점의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Klein, 1970). 끊임없이 생성해가는 통일체로서, 그리고 활동으로서 심적 경험 내용을 보는 그의 입장뿐만 아니라 그의 ‘통일성 내(內)의 복수성’이란 개념은 통일성(즉 전체)이 먼저 있고, 그 안에 부분의 다수가 내재함을 강조함으로써, 전체가 부분에 선행된다는 20세기 형태심리학 개념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단 라이프니츠의 통일성의 개념은 신경 운동의 물리적 조화로서의 통일성과, 이데아의 논리적 조화로서의 통일성 사이에 어중간하게 위치한 개념

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의 심신병행론의 이론도 의식된 형태의 내용과 두뇌의 신경 흥분의 특성 간의 일치를 찾는 형태심리학의 이형동종(isomorphism) 개념의 선구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 < Leibniz의 심리학의 영향: 정리 >

- 현대 20세기 인지과학의 J. Fodor의 단원론 (modularity)의 출발점
- 여러 수준의 의식 개념과 역동 개념이 Freud의 정신분석학의 기초 개념으로
- 의식될 수 있는 것과 의식되지 않는 것을 양적 개념화 한 것은 19세기 초의 Herbart의 의식의 수리적 이론의 기초가 되고, 이후 Weber 등의 정신(심리)물리학의 기초개념이 됨 ->
- 의식과 통합적 지각의 개념은 Wundt의 심리학이 의식 중심의 과학이 되게 하고, 통각을 그의 주요 개념으로 설정하게 함.

3-2-52

Leibniz의 심리학에의 영향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프니츠의 ‘여러 수준의 의식’ 개념과 ‘의식 이하적 심리역동’ 개념이 Freud의 정신분석학의 기초 개념으로, 그리고 ‘의식될 수 있는 것’과 ‘의식되지 않는 것’을 양적 개념화 한 것은 19세기 초의 Herbart의 ‘의식의 수리적 이론’의 기초가 되고, 이것은 이후 19세기 중반의 Weber 등의 ‘정신(심리)물리학’의 기초개념이 되었고, 그의 ‘의식’과 ‘통각적(통합적) 지각’의 개념은 19세기 후반의 ‘Wundt의 심리학’이 의식 중심의 과학이 되게 하고 통각(統覺)을 그의 주요 개념으로 설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단자 개념과 이론은 20세기 초의 형태심리학에 영향을 주었고 20세기 중반 이후의 인지과학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던 포더(J. Fodor)의 ‘단원론(modularity)’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이프니츠 관련 웹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3 슬라이드 생략)

Leibniz 삶: <http://mally.stanford.edu/leibniz.html> ;

<http://www-groups.dcs.st-and.ac.uk/~history/Mathematicians/Leibniz.html>

Leibniz의 삶과 학문: http://en.wikipedia.org/wiki/Gottfried_Leibniz

Leibniz의 형이상학: <http://www.utm.edu/research/iep/l/leib-met.htm>

라이프니츠의 저술문헌 목록 및 그 일부 링크를 보시려면 위의 위키피디아 사이트 자료를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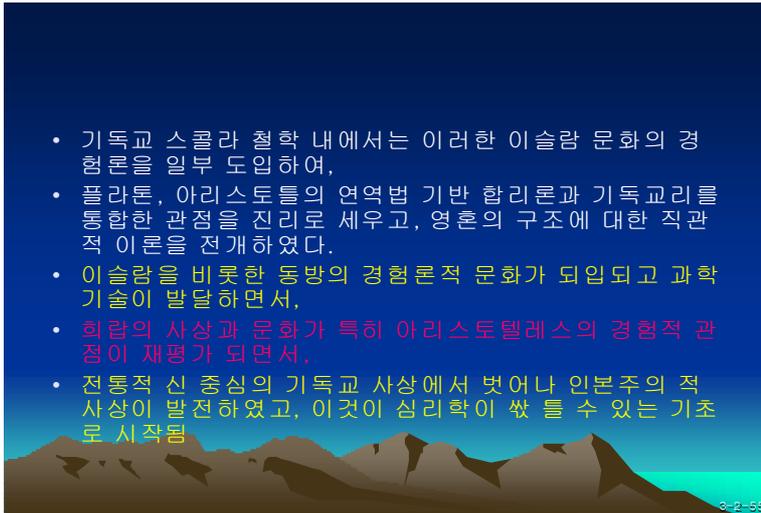
5. 라틴-이슬람 문화, 중세 기독교시대, 르네상스, 17세기의 심리학: 종합

- 로마시대에 경험주의적 접근이 시도되기는 하였으나,
 - 합리론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 플라톤의 합리론적 전통의 기본개념과, 기독교 신조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 및 대전제(신)에서 삼단논법적 연역을 통하여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논리 틀의 독단론에 구속되어 중세 암흑기가 지속되었다.
- 이 당시에 희랍의 자연주의적, 과학적 관점을 유지하고 발전시킨 것은 이슬람 문화였고, Avicenna는 대표적 이론가, 과학자였다.

3-2강 file no.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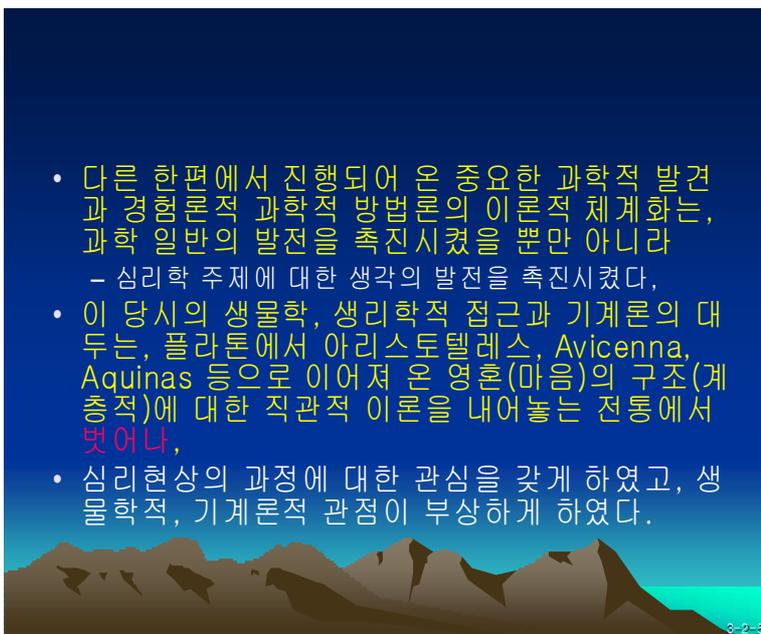
이제까지 17세기의 합리론과 경험론의 대표적 학자 중심으로 열거하며 설명을 했는데 라틴시대부터 17세기까지의 심리학을 다른 생각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시대에 경험주의적 접근이 시도되기는 하였으나, 플라톤 전통의 합리론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플라톤의 합리론 전통의 기본개념과, 기독교 신조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 및 대전제(신)에서 삼단논법적 연역을 통하여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논리 틀의 독단론에 구속되어 중세 암흑기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이 당시에 희랍의 자연주의적, 과학적 관점을 유지하고 발전시킨 것은 이슬람 문화였고, 이슬람의 의사요 철학자인 Avicenna는 그 대표적 이론가, 과학자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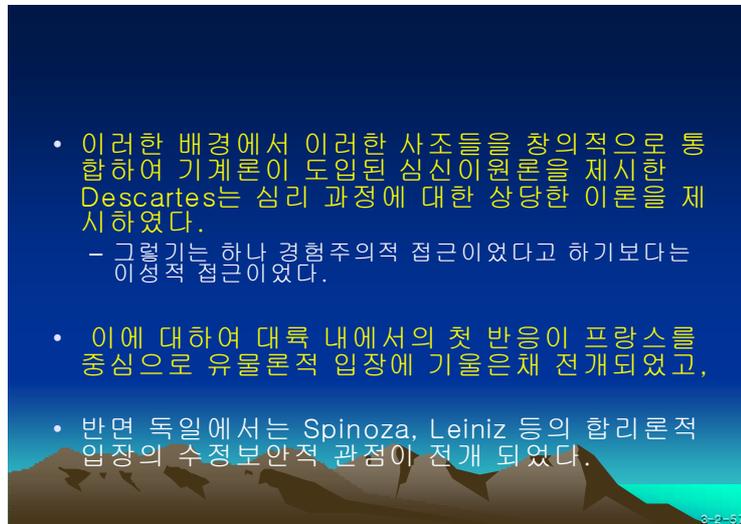


3-2강 file no.55

그 이후 기독교 스콜라 철학 내에서는 이러한 이슬람 문화의 경험론을 일부 도입하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법 기반 합리론과 기독교 교리를 통합한 관점을 진리로 세우고, 영혼의 구조에 대한 직관적 이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슬람을 비롯한 동방의 경험론적 문화가 유럽에 도입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희랍의 사상과 문화가,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경험적 관점이 재조명 되었고, 그 결과 전통적 신 중심의 기독교 사상에서 벗어나 인본주의적 사상이 발전하였고, 이것이 후에 심리학이 싹 틀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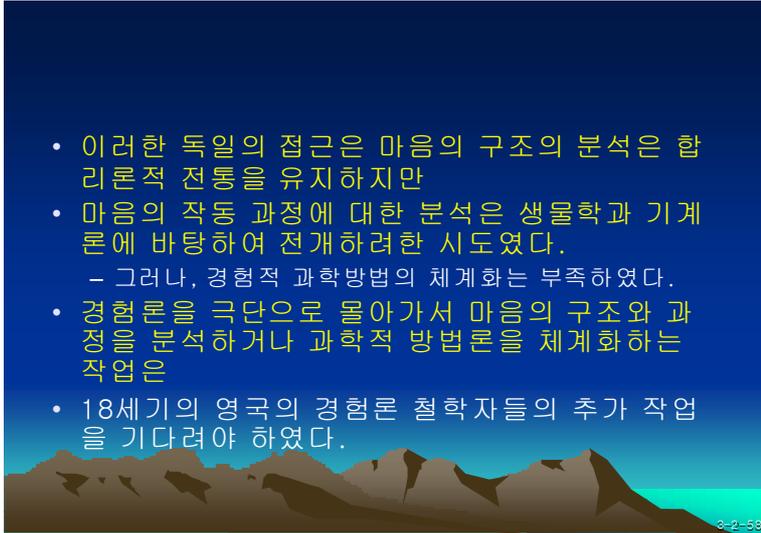


다른 한편에서 진행되어 온 중요한 과학적 발견과 경험론적 과학적 방법론의 이론적 체계화는, 과학 일반의 발전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리학의 여러 주제에 대한 생각의 발전을 촉진시켰습니다. 이 당시의 생물학적, 생리학적 접근과 기계론의 대두는,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 Aquinas 등으로 이어져 온 영혼(마음)의 구조(계층적)에 대한 직관적 이론을 내어놓는 전통에서 벗어나 심리현상의 과정에 대한 관심을 경험론 관점에서 갖게 하였고, 그 결과로 생물학적, 기계론적 관점이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러한 사조들을 창의적으로 통합하여 기계론이 도입된 심신이원론을 제시한 Descartes는 감각 관련 생리적 과정에 대한 상당한 이론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데카르트의 심리이론은 이성적 직관적 이론이었고, 신체가 아닌, 마음의 구체적 작동 과정에 대하여는 경험적, 과학적 이론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입장에 대하여 대륙 내에서의 첫 반응이 프랑스의 말브랑쉬나 라메뜨리를 중심으로 유물론적 입장에 기울은 채 전개되었고, 반면 독일에서는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등의 '합리론적 입장'의 수정보완적 시도가 전개 되었습니다.



3-2강 file no.58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접근은, 마음의 내용, 즉 마음의 구조 분석에는 합리론적 전통을 유지하지만, 마음의 작동 과정에 대한 분석은 생리학과 기계론에 바탕하여 전개하려 하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륙 합리론자들의 수정, 보완 시도들에서 경험적 과학방법의 체계화는 부족하였습니다. 경험론을 극단으로 몰아가서 마음의 구조와 과정을 분석하거나 과학적 방법론을 체계화하는 작업은 그 이후의 18세기의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들의 추가 작업을 기다려야 하였다.

그동안의 유럽 대륙의 작업들은 경험주의적 접근이었다기보다는 이성적인 접근, 그리고 실험적 접근이었다기보다는 자연 관찰적인 접근이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럽의 이태리나 영국의 경험주의적 경향하고 프랑스와 독일의 합리론적 경향들이 서로 대두되어서 상호작용하고 있었지만, 이 두개가 결합이 안됐었습니다. 경험적 방법의 과학적인 발견과 연구들이 시작이 되긴 했지만, 경험적 방법론의 체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것이 연구 경험론자들의 추가 작업을 거쳐야했습니다. 이것이 18세기의 영국의 경험론 및 연합주의의 성숙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6. 18 세기의 영국의 경험론/ 연합주의

• 18세기의 특성

- 3 혁명 - 산업혁명 / 프랑스 혁명 / 미국 독립
- 반교회적 사고 / 백과사전적 시기 /
- 화학의 융성 /
- 수학의 부상 /
- 인간 권리에의 요구 /
- 문화국으로서의 독일의 부상

3-2강 file no.59

18세기 영국의 경험론과, 연합주의를 살펴보자면, 18세기의 특성은 세계혁명, 산업 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이 일어나서 세계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었고, 반교회적 사고, 백과사전적 지적 분위기, 화학과 수학의 융성, 인간 권리의 요구 등의 변화와, 그 다음에는 이전에는 야만 국가였던 독일이 문화국가로써 떠오르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 Berkeley(1685-17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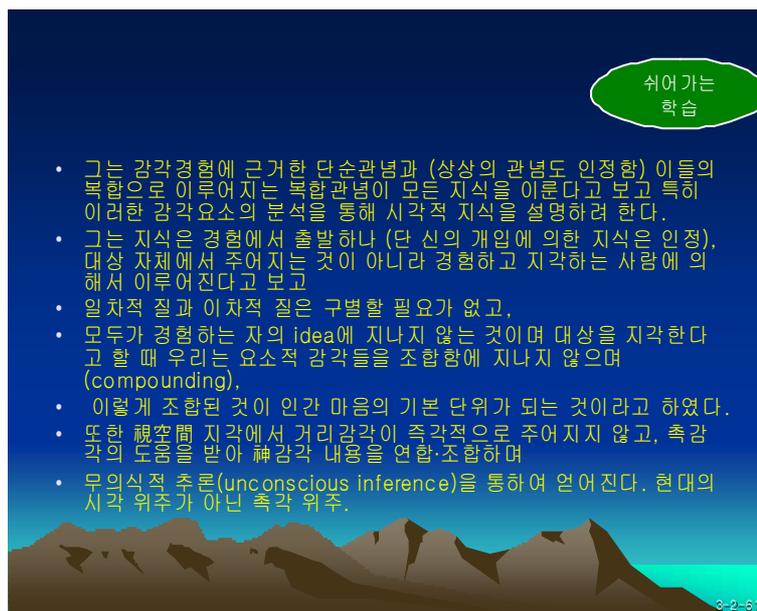
- Descartes의 생득적 관념에 반발
- Hobbes와 Malebranche의 감각주의를 도입
- Locke의 경험주의와 관념의 연합논리는 도입하되
- Locke의 일차적 감각 질의 개념은 버리며
- 주관적 관념론 subjective idealism
 - 모두가 경험하는 자의 idea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 - 처음으로 깊이/삼차원 지각에 대한 이론 제시 (learned cues to depth)
- - 연합주의



3-2강 file no.60

유럽 대륙을 떠나서 이 당시의 영국의 경험론적 사상가들을 보면, 먼저 언급되어야 할 학자는 영국의 영국교회 주교 및 철학자였던 버클리(George Berkeley, 1685-1753; http://en.wikipedia.org/wiki/George_Berkeley; <http://plato.stanford.edu/entries/berkeley/>)이었습니다.

버클리는 데카르트의 생득적 관념, 그러니까 인간이 선천적으로 생득적 관념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데카르트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그 다음에 흄스와 말브랑쉬의 감각주의를 도입하고, 로크의 경험주의와 관념의 연합 논리를 도입하지만, 로크의 1차적 감각질의 개념은 버리고, 마음의 내용이 되는 모든 것이 경험하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만들어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주관적 관념론의 입장을 세웠습니다. '지각되는 바가 실재이다.'라는 그의 논지는 데카르트처럼 '마음이 어떻게 물질에 관련되는가'나, 로크처럼 '물질이 어떻게 마음을 생성하는가'도 아니고, '마음이 어떻게 물질(지각되는 실재)을 생성해내는가' 라는 비물질주의, 주관주의적 물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의 공간적 연장됨, 크기 등이 대상 자체의 속성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감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론] -, 감각들이 (예: 시각 + 촉각 + 신체감각) 연합되어서 - [연합주의] - 주관적으로 판단, 평가한 결과이기예 - [주관주의] - 우리가 지각하는 물질은 인간 마음이 생성해 내놓은 관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3-2강 file no.61

그는 또한 시각에서 깊이(삼차원) 지각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버클리의 이론이 심리학사에서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그는 시지각이 다른 감각(촉각)

과의 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즉 그는 지각이 감각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각 간의 연합에 의해 이루어짐을 보인 것입니다. 이전학자들이 사고(기억)에서 관념들 간에 연상이 이루어지는 현상 중심으로 논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마음의 내용이 감각 간의 연합에 의해 어떻게 가능하여 지는가를 보인 것입니다. 심적 현상을 어떻게 경험론과 연합주의를 결합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를 보인 것입니다.

더 설명하자면, 그는 감각경험에 근거한 ‘단순관념’과 (상상 관념도 인정함) 이들의 복합으로 이루어지는 ‘복합관념’이 모든 지식을 이루어낸다고 보고, 특히 이러한 감각요소의 연합 메커니즘의 분석을 통해 시각적 지식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는 지식은 경험에서 출발하나 (단 신의 개입에 의한 지식은 인정), 대상 자체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지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일차적 질과 이차적 질은 구별할 필요가 없고, 모두가 경험하는 자의 관념(생각, idea)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대상을 지각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요소적 감각들을 연합 메커니즘에 의해 조합함에 지나지 않으며(compounding), 이렇게 조합된 것이 인간 마음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공간 지각에서 ‘거리’가 생득적으로 또는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촉각의 도움을 받아 감각 내용을 연합·조합 경험하며 무의식적 추론(unconscious inference)을 통하여 얻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물질이 실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 해석된 관념이 존재할 뿐이라는 그의 비물질적 주관주의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특히 그의 시각 논의에서) 버클리식 심리학적 문제를 어떻게 경험적으로 탐구하여 갈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과학적 심리학이 추구할) 방법을 효시한 것이었습니다.

[흙]

다음으로 영국의 로크, 버클리와 함께 18세기 영국 경험론의 3대 철학자인 흙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스코트랜드의 철학 자 데이빗 흙(David Hume, 1711-1776, http://en.wikipedia.org/wiki/David_Hume; <http://plato.stanford.edu/entries/hume/>; <http://www.iep.utm.edu/hume/>)은 철학의 형이상학을 심리학으로 대체하고 ‘인간본성의 과학(the science of human nature)을 경험론에 근거하여 세우려 하였습니다. 그는 뉴턴이 ‘인력’이라는 개념으로 원자들의 결합을 설명하는 대체계를 세웠듯이 심리과학에서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마음속의 관념들의 연합을 설명하려는 대체계를 세우려 했습니다.



3-2강 file no.62

그는 경험론적 인식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사용할만한 지식을 구성함에 있어서 인간 이성이란 것이 무력하며 우리가 확실성을 갖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극단의 회의론적 입장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감각 경험에 의해서, 감각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전에 합리론자들과 경험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천적인 개념들, 선천적인 지식, 생득적인 지식, 그런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모든 지식의 기본은 감각 경험이라고 하며 감각 경험이 어떻게 연합되는가 하는 연합 법칙론을 제기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의 내용은 지각(perceptions)이며, 지각은 인상(impressions)과 관념(ideas)으로 나뉘며, 인상은 오늘날 감각이라고 지칭되는 것이며, 관념은 다소 희미하여진 인상이며, 인상과 관념은 외적 대상에 대한 감각 또는 내적 성찰(reflection)을 통해서 생성되며, 성찰은 정념(passions)과 정서를 포함하는데 정념은 다시 둘로 나누어져서 애증과 같은 격렬한 정념, 보통 정념, 조용한 정념(미적, 도덕적 감성)으로 나뉘어집니다. 지각은 단순지각, 복합지각으로 나뉘어지는 데, 단순지각은 더 분석 불가능한 단일 감각이며, 복합지각은 단순지각의 결합이며, 단순 관념은 단순 감각 인상의 복사판이며 복합관념은 단순관념의 집적입니다. 따라서 모든 유의미한 관념은 감각인상으로 환원 가능하며 관찰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학이라든가 형이상학적 관념은 과학에서 추출되어야, 즉 감각 경험에 바탕을 두지 않는 심리 현상 개념은 추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한 과학’에의 그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공헌이 ‘관념 연합 원리(doctrine of association of ideas)’라고 하며, 연합은 우주의 모든 경험을 결합

하는 시멘트이며 이는 더 환원할 수 없는 궁극적 원리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연합주의자였습니다. 연합에 대하여는 여러 철학자들이(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홉스, 버클리) 이미 이야기 했고 연합주의는 상당히 긴 역사를 지니고 있고⁶⁾ 다음에 언급할 Hartley가 더 중요한 연합주의자였기는 하지만 흄의 공헌도 상당한 무게를 지닙니다.

흄은 그의 책(1748)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에서 3개의 관념연합원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원리는 유사, 연접(접속), 인과(resemblance, contiguity, causation)의 원리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관념이 연합되려면 그 관념들이 유사하던지, 시공간상으로 연접(접속)되어 발생하던지, 아니면 서로 인과 관계이든지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접적 경험의 반복이 연합되어 습관화되어 지각되는 된 사고의 경향성에 의한다고 봅니다.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일반화적 사고도 개별 까마귀에 대한 감각 경험들의 연합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지 순수한 이성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따라서 마음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 합리론자들처럼 이성을 거론할 필요없이 감각 경험의 연합을 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에서 더 나아가서 인과 관념도 합리론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생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하여 학습된 것이며, 그것도 원인-결과 관념 그 자체를 학습한다기 보다는 선행사건, 후행사건의 연접(접속)(contiguity)을 반복하여 경험하고 그런 연접 관계를 필연으로 연합하여 생각하는 마음의 습관(habit) 또는 관습(custom)의 경향성에 의한다고 봅니다. 즉 인과란 생득적으로 주어지는 이성적(rational) 관념(ideas)이 아니라 해당 사건들(선행 사건 및 후행사건)의 연합에 대한 반복된 감각 경험에 바탕을 둔 우리 마음의 습관 또는 경향성이란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합리론자들에 의해서 인간 이성의 산물이라고 간주된 귀납적 일반화 및 인과적 사고가 동물에게서도 관찰될 수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이성의 한계를 보이고 경험론자들의 감각 경험 연합을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리현상을 논함에 있어서 동물 연구가 중요한 시사를 주는 연구방법 접근이 될 수 있음을 보였고, 동물과 사람이 신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같은 연속선 상에 있음을 보임으로써 후에 심리학적 논의에서 다윈 등의 진화론과 적응적 관점의 논의가 심리학에 적용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끝으로, 그는 또한 인간의 실생활(특히 도덕적 삶과 행위와 관련하여) 이성보다는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⁷⁾ 인간 마음 논의에서 이성을 강조한 대륙의 합리론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후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나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6) Howard C. Warren의 책(1921) ([A History of Association Psychology]. NY: Charles Scribner's Sons.)의 1장에 연합주의에 대한 설명, 2장에 Hume 까지의 연합론 역사, 3장부터 Hartley에서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철학과 심리학에서의 연합론의 전개에 대한 기술이 주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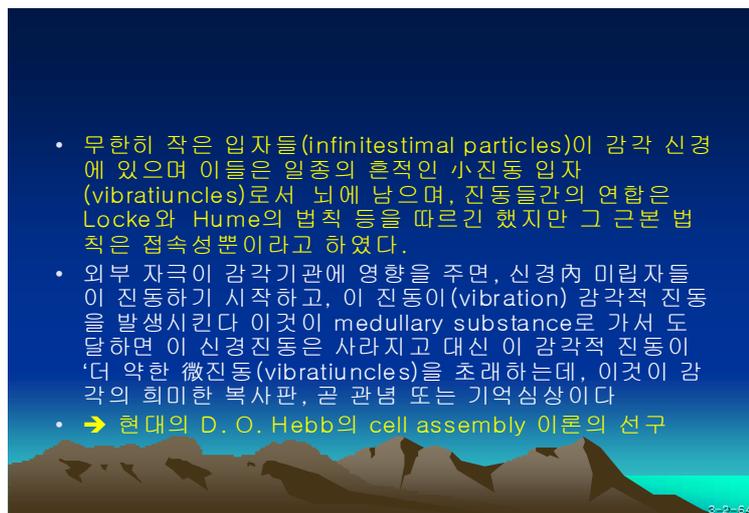
7) "Reason is, and ought only to be the slave of the passions, and can never pretend to any other office than to serve and obey them," - David Hume (1739). [A Treatise of Human Nature]. Sect. iii. Of the Influencing Motives of the Will.

동물의 동기를 강조하는 연구 흐름이 조성될 수 있는 선구적 배경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여간 흠은 지식의 확실성을 이성에서 찾으려는 대륙의 합리론 전통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 경험론적 연합주의자였습니다.

[하틀리]

그 다음으로 흠과 동시대 인물이었으며 영국 연합주의의 대표적 이론가였던 철학자 하틀리(David Hartley, 1705-1757; [http://en.wikipedia.org/wiki/David_Hartley_\(philosopher\)](http://en.wikipedia.org/wiki/David_Hartley_(philosopher)); <http://plato.stanford.edu/entries/hartley/>)는 연합주의적 요소주의를 마음의 작용에 대한 심리학적 연합체계로 도입한 경험론자였습니다. 그는 존 로크처럼 인간 마음은 감각 경험 이전에는 백지장이나 빈 서판과 같으며 감각경험을 통하여 마음의 내용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보았고, 마음의 내용들의(감각, 관념 등)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법칙을 생리적 연합들 메커니즘에 의하여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흠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여, 심상이나 관념은 감각과는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미약해진 감각일 뿐이다 라고 보며, 기억도 감각 경험의 소생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데카르트와, 말브랑쉬의 기계적·생리주의적 입장과 동물영기의 순환개념과, 뉴턴의 기계적 분자운동 개념을 합하고, 존 로크의 관념의 요소주의적 조합의 개념, 버클리와의 흠의 경험적 분석 태도 및 흠의 접속성을 중심으로 한 연합 법칙 등을 모두 종합하여, 지각된 내용은 ‘신경내 미립자들의 미세한 운동의 연합에 의해 주어진다’는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3-2강 file no.64

그에 의하면, 무한히 작은 입자들(infinetestimal particles)이 감각 신경에 있으며 이들은 일종의 흔적인 미세진동 입자(vibratiuncles)로서 뇌에 남으며, 진동들 간의 연합은(이에서 그는 Locke와 Hume의 법칙 등을 따르긴 했지만) 그 근본 법칙이 접속성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외부 자극이 감각기관에 영향을 주면, 신경내의 미립자들이 진동하기 시작하고, 이 진동이(vibration) 감각적 진동을 발생시키고, 이것이 골수에 도달하면 이 신경 진동은 사라지고, 대신 이 감각적 진동이 '더 약한 미세진동(vibratiuncles)을 초래하는데, 이것이 감각의 희미한 복사판, 곧 관념 또는 '감각 경험에 대한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하틀리는 관념의 미세(小)진동은 감각의 진동과 일대일의 대응관계에 있고, 단지 강도만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각된 내용은 [감각적 진동]과 [관념의 미세한 미진동] 간의 대응관계에 의해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제시한 [외부 자극 -> 감각기관 -> 신경입자 진동 -> (감각들의 직접적 연합) -> 신경섬유 -> 골수 -> 미세진동(vibratiuncles) =관념 생성 -> 감각-관념 연합 + 미세진동(관념)과 감각 연합 -> 미세진동(관념)간 연합 = 복합관념]]의 연합 메커니즘 이론은 마음의 과정을 분석하는 틀을 보여주었습니다. 하틀리는 더 나아가 이 미세진동의 연합법칙으로 감각, 지각, 정서, 기억, 언어, 추리 등의 제반 심적 활동과 수의적 및 불수의적 운동 행동을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소들의 결합에 의한 변형이나 생성을 언급함이 없이 단순히 접속성 법칙(그는 연합을 동시적 연합 및 계시적 연합으로 분류하기도 하였습니다.)에 의해 감각요소와 관념요소들의 결합, 더 나아가서 마음 일반을 설명하려 한 하틀리의 입장은 영국 요소주의의 절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생리 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연합 이론은 현대의 1940년대의 D. O. Hebb의 세포집합(cell assembly) 이론의 선구적 생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Hartley(1705-1757):

- - 연합(연결)주의를 심리학적 이론체계로 간주
- - 감각과 심상은 강도만 차이 있을뿐
- - 완전한 심리적 요소주의
- - 연합의 유형 제시(계열적, 동시적)
 - 이런 분류 처음
 - 단순 연합과 복합 연합
- - 기억은 감각 흔적의 소생
 - 학습된 순서대로/ 두뇌의 상태에 전적으로 의존
- - 초기 능력 심리학자
- - 생리적 연합이론 -Locke 와 19세기를 다리 놓음
 - 연합의 신경적 기초 제시



3-2-63

하틀리에 대하여 종합한다면, 그는 연합주의를 심리학적 이론체계로 간주하였고, 감각과 심상, 감각과 관념은 강도에서만 차이 있을 뿐이며, 기억은 감각 흔적의 되살림이어서 학습된 순서대로 일어나며 두뇌의 상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입장을 전개하였고, 그의 생리학적 연합이론은 연합의 신경적 기초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감각경험의 연합에 근거한 마음 이론을 전개한 18세기의 완벽한 심리적 요소주의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프랑스의 유물론

- 한편,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식의 경험주의, 기계주의 및 유물론이 대두되었다
- (Julien Offray de La Mettrie): La Mettrie(1709-1751)
 - 물질이 운동뿐만 아니라 의식의 속성까지 지니고 있고,
 - 인체는 스프링(Spring)의 조합이며
 - 영혼은 신체라는 기계 위에 떠도는 화환에 지나지 않으며
 - 이러한 스프링(특히 감지적인 물질인 두뇌라는 스프링)의 운동 원리에 지나지 않는다.
- 인간의 모든 심적 현상은 물질의 감각적 機制의 조합으로 환원
- La Mettrie의 입장은 종래의 유심론을 기계적, 생리적 자연주의로 전환시키는 기점을 이루었다.

3-2-05

3-2강 file no.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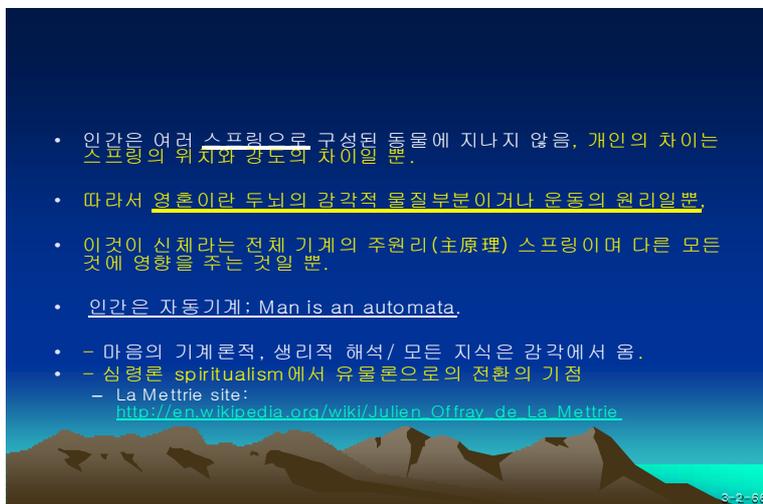
[라 메뜨리]

그 다음에 프랑스의 유물론으로 넘어가는데, 프랑스에서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대한 반응으로 순수하게 프랑스식의 경험주의, 기계주의 및 유물론이 대두되었습니다. 데카르트 이후의 프랑스의 유물론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라메뜨리는 (Julien Offray de La Mettrie, 1709-1751)⁸⁾ 물질이 운동뿐만 아니라 의식의 속성까지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여 종래의 유심론과 심령론(spiritualism)을 기계적, 생리적 자연주의로 전환시키는 기점을 이루었습니다.

데카르트의 ‘동물기계(bête machine)’라는 개념에 대응하여 인간의 몸뿐만 아니

8) (라메뜨리의 삶과 업적; 위키피디아 자료 ; http://en.wikipedia.org/wiki/Julien_Offray_de_La_Mettrie) ; 라메뜨리의 삶- 프레드릭 대제의 라메뜨리 추모사: <http://cscs.umich.edu/~crshalizi/LaMettrie/Eulogy/>); 라메뜨리의 책, 기계로서의 인간 (영어 번역본), : <http://cscs.umich.edu/~crshalizi/LaMettrie/Machine/> 책; 라메뜨리의 '기계로서의 인간'에 대한 21세기의 관련 신경과학과 진화이론 자료 유럽 인지시스템 연구회 자료 (2008): <http://www.percepp.com/genoatranscription/genoatranscription.htm> ;

라 마음의 작용도 기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인간은 일종의 자동기계 (Man is an automata.)임을 설파한 그의 책, [L'HOMME MACHNE](기계로서의 인간)은 인체는 스프링(Spring)의 조합이며, 영혼은 신체라는 기계 위에 떠도는 화환에 지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여러 스프링으로 구성된 동물에 지나지 않으며, 개인의 차이는 스프링의 위치와 강도의 차이일 뿐이고, 따라서 영혼이란 두뇌의 감각적 물질부분이거나 운동의 원리일뿐이며, 이것이 신체라는 전체 기계의 주원리(主原理) 스프링(특히 감지적인 물질인 두뇌라는 스프링)의 운동 원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2장 file no.66

그는 인간의 모든 심적 현상은 물질의 감각적 메카니즘의 조합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나 영혼이라는 것조차 두뇌의 감각적 물질 부분이거나 원리일 뿐이라고 했고, 인간은 자동기계(automata)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라메뜨리의 입장이 20세기의 인공지능 형성의 배경 이론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데카르트의 기계론을 근본적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는 데카르트가 ‘동물은 순수한 기계이다’라고 한 것은 옳지만,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며 ‘인간기계(le homme machine) 이론’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⁹⁾

9) La Mettrie 에 관한 자료는 다음 웹 자료를 참조하세요: 그의 삶과 업적 (위키피디아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Julien_Offray_de_La_Mettrie ; 한글자료: <http://www.aistudy.co.kr/pioneer/LaMettrie.J.htm> ; encyclopedia.com 자료: http://www.encyclopedia.com/topic/Julien_Offray_de_La_Mettrie.aspx ; 20세기에 인지과학이 등장하며 정

“데카르트가 ‘동물은 순수한 기계다’라고 논증하였다. 그러한 그의 생각은 옳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인간도 기계라는 것을 보일 수 있다. 동물과 인간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이는 방법의 하나는 인간에게 특유한 기술과 능력이라고 혹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동물도 (예를 들어 원숭이를 언어를 사용하도록 훈련시킨다거나), 기계도 (말하는 기계사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동물과 인간이 동일한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 것이며, 그들과 인간의 지(知)(intellect)에 본질적 차이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인간의 메커니즘이 그저 더 크고, 더 미묘한 정도의 조직화와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뿐일 것이다.

‘우리는 결국 모두 기계인 것이다. 그러나 사고할 수 있는 기계라는 것이다.’ 단순한 기계일 뿐이라고 데카르트가 명증했던 동물이 언어적 기술을 - 데카르트가 인간과 동물을 구별짓는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언어를- 보일 수 있게 함으로써 동물이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서 인간인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과, 우리도 기계라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동물기계는 인간기계로 변환되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동물이 기계임을 보였지만, 사고와 감정이 없는 순수한 기계임을 보인 것은 아니다. 동물은 우리 - 앎과 지능적인 창조물인 - 인간과 같고, 우리는 동물들과 같다. 모두 사고와 느낌을 갖게 되는 복잡한 기계인 것이다(La Mettrie, 1774; Oeuvres philosophiques. Vol I. ; quoted in Gunderson (1985; pp. 23-24)).”

보처리적 인지주의 틀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의 발전에 La Mettrie의 ‘기계로서의 인간’ 개념이 큰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보시려면, <http://blog.naver.com/metapsy/40161158790> 의 ‘기계와 마음의 연결역사의 흐름’이라는 첨부파일(pdf)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경험적 관점의 강조
- 2. 유물론 지지의 주장:
 - 인간과 동물(기계) 사이에 명확한 구별이 없다.
- 3. 물질은- 연장(공간에 전충)이 있고, 운동의 힘이 있고, 느낌(feeling)의 능력이 있다.
- 4. 인간은 - 기계이다
 - 인간의 모든 능력은 감각과 상상으로 환원된다
 - 인간은 동물과 같이 교육가능하다
 -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모른다
- 5. 신 - 존재 - 증명도 안되고 실제로 중요하지도 않다
 - 섭리- 기계적 인과론의 가설에 비해 비효율적

3-2-67

3-2장 file no.67

종합한다면, 라메뜨리는 유물론적 기계론을 제시하며 대륙의 경험론적 관점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는 인간과 동물(기계) 사이에 명확한 구별이 없다고 하였고 인간은 기계임을 강조하였으며, 인간의 모든 심적 현상은 감각(과 그에 기초한 상상)으로 환원된다고 보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더 나아가면 신이 존재한다는 명제는 증명도 안 되고 실제로 중요하지도 않고, 신의 섭리는 기계적 인과론 가설에 비해 비효율적이다 라는 입장을 전개하였습니다.

[폰디약]

그 다음에 프랑스의 존로크라고도 불리는 프랑스의 유물주의 철학자 폰디약 (Etienne Bonnot de Condillac, 1715-1780) (http://en.wikipedia.org/wiki/%C3%89tienne_Bonnot_de_Condillac ; http://www.encyclopedia.com/topic/Etienne_Bonnot_de_Condillac.aspx)은 기계적 결정론과 감각주의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는 합리론자들의 생득적 관념뿐만 아니라, 감각 경험이 대상의 모양, 크기, 위치, 거리에 대한 지식을 직접 제공한다는 영국 경험론자들의 주장까지도 기각하였습니다.



- E. de Condillac(1715-1780)
- - 프랑스의 Locke
- 기계적 결정주의? 감각주의
- - 촉각을 가장 중요한 감각으로 간주; 촉각을 기초로 하여 학습을 통해 시각이 발달한다.
- - 처음으로 행동의 모델 제시
- 인간의 모든 심적 활동은 감각으로부터 도출된 것에 지나지 않고, 모든 복잡한 경험도 감각들이 연합법칙에 따라 연결된 것이다.
- 그는 인간을 아무런 이데아가 없는 수동적인 동상(statue)에 비유하여, 이 동상에게 후각만 주어진다면 경험에 의해 인간과 같은 심적 능력을 지닌 존재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3-2-68

3-2장 file no.68

그는 촉각을 가장 중요한 감각으로 간주하고 촉각을 기초로 하여 학습을 통해 시각이 발달한다고 보았으며, 자기한테 동상(statue)을 하나 주고, 그 동상이 후각 기능만 가능하게 하면 냄새만 맡는 경험을 통해서, 촉각을 바탕으로 연합과 학습 메커니즘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심적 내용, 마음 내용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경험론적 감각주의(empirical sensationism)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아무런 관념이 없는 수동적인 동상에 비유하여, 이 동상이 주의력과 쾌와 고통의 감지 능력만 가지고, 감각적, 기계적 연합 경험을 통하여 어떻게 각종 복잡한 심적 기능과 관념들을 지닌 존재로 형성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였습니다. 로크의 관념의 한 원유인(原由因)으로서의 반성(reflection)의 개념까지도 버린 콘디악의 냉철한 기계적 감각주의는 프랑스의 요소주의, 연합주의, 감각주의를 극단으로 밀고 나간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듯이 그는 마음에 대한 과정적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심적 활동은 감각으로부터 도출된 것에 지나지 않고, 모든 복잡한 경험도 감각들이 연합법칙에 따라 연결된 것이며, 감각에는 연장, 형상, 질서와 같은 속성들이 없으며, 각 감각질은 촉각을 통하여(버클리에서와 같이) 연합에 의해 학습된다고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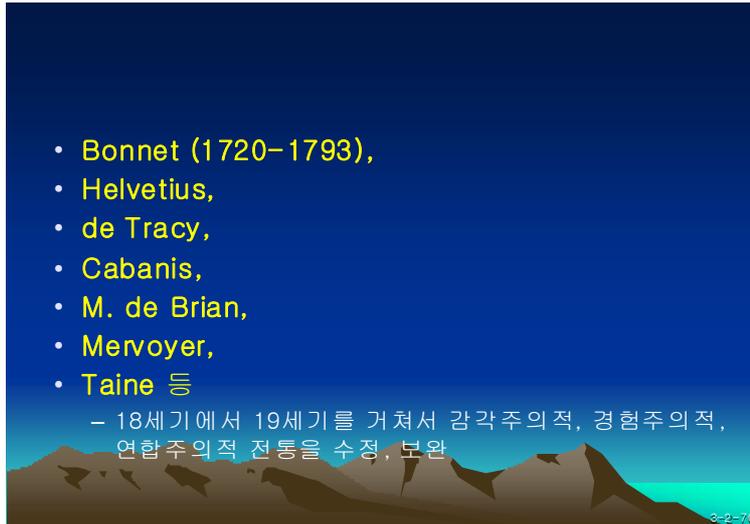
진화주의적 철학자 Herbert Spencer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감각경험에 바탕을 둔 그의 쾌 불쾌의 구분은 20세기 학습심리학자 E. Thondike의 ‘효과의 법칙’의 선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감각주의적 주장은 당시의 유럽의 사조와 맞아들어 갔기에 당시의 유럽학자들에 의해 긍정적으로 수용된 것 같습니다.

Condillac과 La Mettrie의 입장이 그 후에 지지되거나 수정되었는데, 스위스인 철학자 보닛 (Charles Bonnet, 1720-1793; http://en.wikipedia.org/wiki/Charles_Bonnet)은 Condillac의 입장을 수정하여 Malebranche와 Condillac 등이 연합과정을 생리적 측면에서 해석한 것을 뉴턴의 운동개념과 하틀리의 신경섬유진동 개념으로 재현시켰습니다.

보닛은 인간은 몸과 마음이라는 두 개의 물질과 비물질의 실체로 되어 있으며, 모든 지식은 감각에서 비롯되는데, 감각은 신경의 진동이 뒤따르며, 이 움직임이 뇌의 섬유를 움직이고 이것이 영혼(마음)을 흔들어 놓아 감각이 일어나며 감각 내용은 어떤 감각 신경 섬유가 어떤 조합에 의해 움직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한번 어떤 감각자극에 의해 움직여진 신경은 같은 자극이 다시 입력되면 그에 대한 저항이 감소된 채로 진동하여 이것이 기억의 조건이 되며, 마음의 능동적인 작용인 성찰이 감각의 습득과 조합에 적용되면 그로부터 추상적 관념이 생겨나서 단순 감각과 구별되며 마음이 작동되게 하는 것은 쾌와 고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에게서 시력의 손상으로 일어나는 착시 현상(대상이 실제 대상보다 더 작게 보인다든지 하는 착시)인 보닛 증후군(Charles Bonnet syndrome, CBS)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외에 그는 다소 엉뚱한 신학적 존재론을 전개하여 몸도 죽지 않는 단계로 옮겨가며 인간 내의 작은 인간(homonculi)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재난에서도 살아남는다는 등의 생각도 전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보닛의 생각에는 Condillac의 ‘동상’개념에서 기계적, 경험적, 연합적으로 심적 내용을 조합·형성한다는 생각이 그대로 살아있으나, Condillac과는 달리, 신경섬유의 활동에 관여하여, 심적 내용을 결정하는 주의과정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영혼의 활동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닛의 신경섬유들의 조화된 연주(play)의 개념과 영혼의 활동성의 개념은 전자는 Gestalt이론의 이형동질 개념과 연관될 수 있으며, 후자는 후세의 철학과 심리학에서 나타난 ‘활동으로서의 마음’의 개념과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3-2장 file no.70

보닛의 뒤를 이어 엘베시우스(Claude Adrien Helvétius)¹⁰⁾, 트라시(C. de Tracy)¹¹⁾, 카바니스(Pierre Jean George Cabanis)¹²⁾, 비란(François-Pierre-Gonthier Maine de Biran)¹³⁾ 등이 18세기에서 19세기를 거쳐서 감각주의적, 경험주의적, 연합주의적 전통을 수정, 보완하고, 트라시의 입장에서부터 독일의 합리주의적 전통의 개념인 ‘활동으로서의 마음 (mind as activity)’의 개념이 재생되게 됩니다.

8. [독일 합리론의 성숙과 그 초기 영향]

10) 엘베시우스는 인간의 모든 심적 능력(기억,판단,비교 등)은 물리적 감각으로 환원할 수 있으며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식의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없으며, 인간은 쾌를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이기적 동기에서 심리적인 것과 행동이 나온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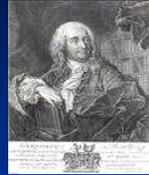
11) Destutt de Tracy는 콘디악의 감각주의적 입장을 전개한 마지막 프랑스 철학자로서 인간의 의식은 지각, 기억, 판단, 의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 감각의 변형이라고 보았습니다.

12) [The Journal of Psychological Medicine and Mental Pathology], Vol 1. p.119 밑에서 둘째 단락에서 보면, 프랑스 혁명 당시 기요틴에서 참수당한 사람의 귀에 '사면되었다'라고 소리쳐도 그 참수된 머리는 이를 감각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하여 당시의 의사였던 카바니스와 기요틴은 확신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써있다.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그 당시의 감각주의, 실험주의적 생각의 극단적 단면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13) 비란은 초기에는 존로크나 콘디악과 같은 감각주의자였으나 후기에는 수동적 감각이 아닌 능동적 감각과 마음의 힘을 강조하는 (합리론에 가까운) 입장을 전개하였습니다.

8. 독일 합리론의 성숙과 그 초기 영향

- von Wolff(1679-1754)
- Leibnitz의 제자
- '합리적 심리학'과 '경험적 심리학'을 구분하려는 시도
- 활동의 잠재성을 지닌 마음
- 통합하는 힘으로서의 마음의 역동성, 통일성, 활동성
- 가능성인 능력(faculties)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실체
- 사물을 내적으로 표상하려는 끊임없는 활동 또는 노력
- 혼돈된 소(petis)지각인 '감각'에서 → 보다 뚜렷한 지각으로
→ 그리고 여기서, 절대적으로 명료한 표상이 형성되는 '統覺
(apperception)'



3-2장 file no.71

- Wolff → J. N. Tetens(1736-1807) → Kant
- Tetens는 심리학을 기계적 생리적 연합주의로 환원시키는 것의 오류를 지적
- 심리학은 심리학적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현상만을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 비판전기학파들에 의하여 독일내에서의 감각주의, 경험주의 및 합리주의 간의 조화가 시도되었으며,
- 근본적으로 마음은 통합적 활동이며 능력이고 연합과정은 전체 심적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제의 한

3-2장 file no.72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독일 합리론에 대한 설명이 제시됩니다.

[폰 볼프]

먼저 독일의 합리론 철학자 폰 볼프(Christian Wolff, 1679-1754;
<http://plato.stanford.edu/entries/wolff-christian/>;
[http://en.wikipedia.org/wiki/Christian_Wolff_\(philosopher\)](http://en.wikipedia.org/wiki/Christian_Wolff_(philosopher)))는 라이프니츠와 칸트를

있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이프니츠의 제자였던 그는 최초의 공식적인 심리학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활동의 잠재성을 지니는 측면을 강조하고 [경험적, 감각적 심리학]과 [합리적, 이성적 심리학]을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 입장에 반기를 들고 라이프니츠와 (라이프니츠의 단자개념은 제외) 로크를 조화하여 [합리론적(이성적) 심리학(rational psychology)]과 [경험적 심리학(empirical psychology)]을 구분하려 시도했던 최초의 학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의하면, 합리적 심리학은 이성에 의하여 명료한 관념을 다루며, 경험적 심리학은 경험에 의지하여 모호하고 혼동된 관념, 즉 감각을 다룬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후에 그가 존로크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인 것을 더 강조하였으나, 볼프의 중심 주제는 활동의 잠재성을 지닌 마음의 여러 기능, 인식, 감정을 진술함으로써, 통합하는 힘으로서의 마음의 역동성, 통일성, 활동성을 강조하는데 있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마음이란, 끊임없이 활동하려는 힘(power), 활동의 잠재성과 가능성인 능력(faculties)으로 이루어진 통일적 실체이며, 사물을 내적으로 표상하려는 끊임없는 활동 또는 노력(vis representativa)이었습니다.

볼프는 영혼의 이러한 지적 능력 또는 힘은 라이프니츠에서와 같이 혼돈된 소(小)(petis) 지각인 [감각]에서 -> 보다 뚜렷한 [지각]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 절대적으로 명료한 표상이 형성되는 [통각(統覺)]으로 그 정도를 달리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의 산물은 (경험론자들의 주장처럼) 하위 능력에서 결합된 관념들의 단순한 재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요소적 내용을 제거한 ‘전체 관념(total idea)’의 의미를 가진 그의 ‘재통합(redeintegretion)’의 개념에서도 나타납니다.

볼프의 입장은 후에 멘델스존(M. Mendelssohn), 테텐스(J. N. Tetens), 칸트로 이어지는 독일의 합리주의적 전통과, 리드(T. Reid), 스투어트(D. Stewart), 해밀턴(W. Hamilton)으로 이어지는 스코티쉬(Scottish)학파의 ‘통일체’ 개념과 ‘활동으로서의 마음’ 개념이 발전하는데 직접적인 자극이 되었으며, 간접적으로 프랑스의 관념론자에게도 자극이 되었습니다.

볼프의 생각을 이은 학자들 가운데에는 비판전기학파의 플라트너(Ernst Plattne), 마스(J. G. E. Maass), 슈미트(K. C. E. Schmidt) 등이 있습니다. 플라트너는 통각이라는 개념을 마음의 통합적 활동 개념으로 제시하였는데, 즉 통각이란 마음 내부에서 대상 특성을 통일하여 표상하려는 끊임없는 활동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스는 연합주의에 대한 독일 최초의 명백한 도전을 제기하였는데, 영국의 연합주의를 볼프의 능력심리학과 타협시키려고 하면서, 유사한 관념들은 전체 지각을 형성하지 않고는 연합할 수 없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슈미트는 마스에 이어 모든 심적 활동이란 단일한 핵심적 심적 활동에 불가분으로 결속되어 있어서, 모든 심적 활동은 핵심적 심적활동으로부터 떼어 내거나 제거시킬 수 없다고 보았

습니다.



- E. Kant(1724-1804)
- Leibnitz, Wolff Tetens의 합리론적 전통과
- Locke, Hume의 경험주의적 전통을 종합하고 조화하여 통합적 인식론을 제시
- 마음이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없으며,
- 경험적으로나 직관적으로 지각될 수 없으며,
- 심적 현상에는 수리적 개념을 적용할 수 없고,
- 심적 현상은 부분으로 분석하였다가 다시 조합하여 연결할 수 없는 통일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기에, 심리학이 과학이 될 수 없으며,

3-2-73

3-2강 file no.73

[칸트]

뒤를 이은 칸트(Immanuel E. Kant, 1724-1804)는 합리론 전통과 경험론 전통을 종합하고 조화하여 통합적 인식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칸트는 라이프니츠, 볼프와 테텐스의 합리론적 전통과 로크, 흄의 경험주의적 전통을 종합하여 통합적 인식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칸트에 대하여는 국내외 참고 문헌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서술하기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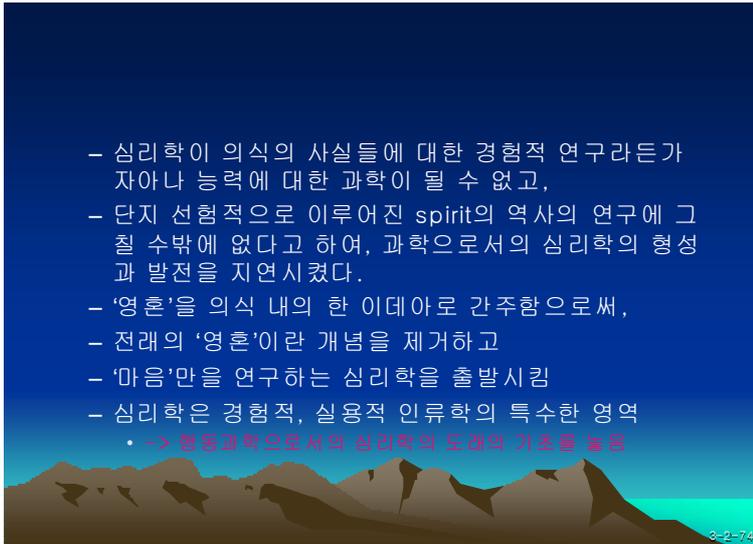
칸트의 철학적 입장은 본래 데이빗 흄의 경험론에 대한 대응(반발)으로 전개되었지만, 그는 결국은 경험론과 합리론 둘 다의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두 입장이 절대적 진리를 결정하기에는 모두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합리론과 경험론이 자신의 틀이 더 맞다고 논지를 전개하며 의견이 아니라 참 진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지만, 칸트에 의하면 두 입장 모두 인간 마음이 한계가 있음을 그리고 경험되는 현실을 구성함에 있어서 마음이 기여하는 바를 고려 못한 채 편향적 입장을 전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상을 지각하거나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의 통합적이고 선형적인 제약이 가해집니다. 시간, 공간, 인과, 체험하는 자아 등의 선형적 진리는 경험론자들의 주장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하여 합리론자들의 주장처럼 논리적 추리에 의해 도출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전통만으로는 이러한 측면을 다루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두 범주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입니

다. 즉 물자체의 (noumenal) 외적 세계와 지각된 내적 세계인 현상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세계는 외적 대상 자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선험적 범주에 의하여 재창조된 바의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은 수동적 감각 기구가 아니라 능동적 활동을 벌이는 active agent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외적 현실을 지각하는 동시에 재창조하는 능동적 활동입니다. 우리가 지각하고 생각하고 아는 모든 것이 감각 경험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의 내용을 연구할 때에는 감각 경험을 분석하여야 하지만, 그것에 의해 심적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험적인 직관적 범주 등의 원리에 의하여 재창조되기에 이러한 부분도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칸트의 이론들에서는 경험론의 부분과 합리론의 부분이 통합되어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칸트는 회랍시대부터 18세기까지 서구를 지배해 온 관념인 ‘영혼’을 의식 내의 한 관념으로 간주함으로써, 전통적인 ‘영혼’이란 개념을 제거하고 ‘마음’만을 연구하는 심리학을 출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상학적 개념, 생득관념, 지각행동의 통일성 등을 논함으로써 경험론적 연합주의의 몰락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는 마음은 세상에 대한 감각자료를 선험적 규칙 또는 선험적 범주에 의해 질서를 부과하여 개념적 현상으로 이르게 하는 형식적이고 활동적인 통일체로 보았고, ‘아래에서 부터 위로 (von unten nach oben, 자료주도적)’의 개념보다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von oben nach unten, 관념·개념 주도적)’의 측면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심적 경험에서 주어진 내용은 이것을 감각 내용이나 다른 어떤 요소 구조로 환원시킬 수 없는 독특한 통일성을 지닌 총체적, 단일적 경험 내용으로 창조 또는 형성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란 경험적으로나 직관적으로 지각될 수 없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없으며, 경험적으로나 직관적으로 지각될 수 없으며, 심적 현상은 부분으로 분석하였다가 다시 조합하여 연결할 수 없는 통일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고 심적 현상에는 수리적 개념을 적용할 수 없기에, 심리학이 의식의 사실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라든가 자아나 심적 능력에 대한 과학이 될 수 없고, 심리학은 단지 선험적으로 이루어진 영혼의 역사의 연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칸트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칸트의 생각은 경험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형성과 발전을 지연시키는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학문적 체계에서는 인류학이 심리학의 영역을 담당하는 구도였습니다. 심리학은 경험적, 실용적 인류학의 특수한 영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3-2강 file no.74

칸트에 대하여 종합을 한다면, 그는 대륙의 합리론 전통과 영국 및 대륙의 경험론 전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두 전통을 통합하는 틀을 제시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심리현상은 시간 속성은 있으나 공간적 속성이 없기에 측정이나 수리적 접근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심리학은 과학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전개하기는 하였지만, 단순 감각 경험을 넘어서 작용하는 마음의 능동적 활동을 거론하며 심적 현상을 분석한 것은 이후에 마음의 과정의 세부를 탐구하는 심리학이 형성될 수 있는 지적 배경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칸트의 개념들은 20세기 중반에 출발한 인지과학과 인지심리학에 많은 이론적 개념을 제공하였습니다.

칸트에 대한 웹자료를 보시려면 다음을 참조하세요

- 위키피디아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Immanuel_Kant
- 스탠포드대 철학 백과 자료: <http://plato.stanford.edu/entries/kant/>
- philosophy pages: <http://www.philosophypages.com/ph/kant.htm>
-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www.iep.utm.edu/kantmeta/>
- Kant on the web: <http://staffweb.hkbu.edu.hk/ppp/Kant.html>
- Kant links: <http://elvers.us/hop/index.asp?m=3&a=75&key=47>
- Britanica : <http://www.britannica.com/EBchecked/topic/311398/Immanuel-Kant>
- Routledge 백과: <http://www.rep.routledge.com/article/DB047>
- <http://staffweb.hkbu.edu.hk/ppp/Kant.html>
- <http://www.friesian.com/system.htm>
- <http://www.scaruffi.com/phi/kant.html>

[9. 종합]

17세기, 18세기의 사조들이 이후의 과학적 실험심리학 형성에의 기여한 바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Descartes 는 그의 이론을 통하여 심리학이 별개의 학문으로 출발할 수 있는 주제와 관점을 제시하였고, Descartes에 대한 프랑스의 1차적 반응으로 Gassendi, La Mettrie 등은 데카르트의 기계론과 이원론을 보완하였으며, 17세기 영국 경험론은 귀납적 과학적 추리의 논리 틀을 형성하였으며, 심리학에서의 연합주의적 관점의 기본을 제공하였고, 르네상스에서부터 17세기, 18세기까지의 유럽의 철학적 사조의 발달은 사고, 연상, 기억, 지각 등의 심리학적 물음의 기초를 가다듬었습니다.

경험론 대 합리론 중심으로 보자면, 영국의 경험론은 실험이론, 경험론, 인과론, 귀납추론, 실험과학을 제공하였으며, 프랑스의 당시의 사조는 기계론, 유물론, 데카르트의 심리학 이론을 제공하고, 대륙의 합리론은 의식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이성적 분석을 통하여 심리학의 연구 주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이 두 전통의 대립과 각각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통합적 틀을 제시하여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작업은 심리 현상에 대한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심리학을 철학의 한 하위 분야가 아닌 하나의 학문 분야로 독립시키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분트에 의하여 이 작업이 19세기 말에 독일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18세기와 19세기의 유럽에서 과학 일반의 발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을 다음 주 강의의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이것으로 3주 2회 차 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